

“평범한 사람들의 성경읽기” * 2020 2차 드라마바이블 온라인통독

다섯 개의 축제 두루마리
아브월 9일 예레미야 애가
부림절 에스더 오순절 룻기
유월절 아가 장막절 전도서

은혜로운 성경통독을 위해

① 매일 통독안내

당일 통독본문/통독가이드는
오전6시~7:30분에 공유합니다.

② 나눔은 자유입니다

다수가 있는 단톡방이므로
1일/1회/5줄 내외로 간단히
받은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③ 지인에게 추천할 경우

카톡방에 개인적으로 초청하지
마시고, 방장이나 동산 목사님께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통독 순서

애가/에스더/룻/아가/전도서
5권을 중심으로 읽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을
1~2장씩 섞어 읽게 됩니다.
역사 순서에 따라 배치했으니
가이드와 함께 통독하시면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⑤ 통독가이드 활용

가이드를 먼저 읽고 통독하시면
이해와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 자유롭게 활용하십시오.
본문에만 집중하길 원하시는 경우
통독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룻기, 아가, 전도서.
통독 본문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음? 순차 본문도 아니고 다 시가서도 아니고 공통점이 뭘까?
속으로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이 책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분도 많으시지만,
사실 장수도 짧고 평소에 비중 있게 다뤄지는 책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본문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책들은 ‘메길로트’ 즉, ‘5개의 두루마리’
혹은 ‘5개의 축제 두루마리’라고 불립니다.
유대인들이 주요 절기(축제) 때 이 책들을 낭독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삶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의 삶을 이어간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이유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인도하심, 배신과 멸망, 회복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몸과 마음을 정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듯 중요한 절기에 애가/에스더/룻/아가/전도서
이 다섯 권을 낭독하며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짧은 책들에 어떤 보화가 묻혀있을까?
기대하며 발견하는 기쁨의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통독 주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성경읽기”입니다.
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축제로 모입니다.
선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삶의 현장에서 온갖 일을 겪다 온 사람들입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 두려움, 공포, 허탈함, 공허함.
상황과 감정 그대로를 안고 낭독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곧 일상으로 돌아갈 그들은 무엇을 묵상하고 결단했을까요?

일상 속에서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평범한 우리네 삶 속의 모든 문제와 감정들을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며 길을 찾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